

날씨·시설·열정 3박자 ‘척척’ ... “이보다 좋을 수 없다”

KIA 타이거즈 제주도 마무리 캠프

맑고 푸른 제주 한낮기온 20도 육박
강창학 야구장 체계적 훈련 시설도
감독에 눈도장 찍기 캠프 열기 후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제주도 캠프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KIA는 지난 1일 제주도 강창학 구장에 마무리캠프를 꾸리고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김중국 감독이 ‘체력’을 강조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캠프의 주장을 맡은 신병수는 “많은 캠프에 참가했는데 가장 힘든 것 같다”며 비 오듯 땀을 쏟았다.

훈련을 이끄는 코칭스태프 입장에서는 날씨·시설·열정 3박자가 척척 들어맞는 캠프다.

일단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날씨. 날씨에 따라서 훈련 스케줄 변경이 불가피하지만, 두 팀을 소화할 때까지 최적 날씨가 이어져 모든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경기장에서 한라산 정상이 보일 정도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0도에 육박하고 있다.

따뜻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특히 온도에 민감한 투수들도 예정된 스케줄 대로 빠르게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캠프 첫날인 1일부터 불펜 피칭에 들어갔던 투수들은 7일 캠프에서 4번째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피칭 개수도 70개까지 끌어올리면서 전력으로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외에서 야간 훈련을 소화하는 야수들도 반소매 차림으로 배트를 휘두를 정도로 날씨는 KIA 편이



제주도에서 마무리캠프를 치르고 있는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강창학 구장 종합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준비됐다.

강창학 구장에는 야구장 메인 구장을 비롯해 리틀 야구장, 보조 구장이 나란히 자리해 있어서 선수들은 로테이션을 돌면서 쉬 없이,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장거리를 뛸 수 있는 주경기장 트랙은 물론 실내 연습장과 웨이트장까지 갖춰져 러닝, 웨이트까지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다.

KIA는 최적의 훈련 환경을 위해 구장 관리를 위한 선발대로 파견했다.

사회인 야구팀이 사용하는 경기장인 데다 도민체

전까지 진행되면서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1주일 먼저 제주도에 투입된 선발대가 트랙터를 몰고 공객이를 들고 마운드를 새로 다지고 그물망을 보수하고 인조 잔디 충전제도 고르게 다시 채워놓았다.

선발대의 보이지 않은 노력 덕분에 선수들은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KIA는 선수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구단 버스로 제주도에 투입했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열정이 핵심 전력이다. 이번 캠프의 최고참인 임석진이 “엄마가 보고 싶

을 정도”라면서 강도 높은 훈련에 허를 내몰렸지만 “더 몰려날 곳이 없다. 선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훈련 분위기를 전했다.

김중국 감독을 비롯해 이범호, 정명원 코치 등 1군 코칭스태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눈도장을 찍으려는 선수들로 캠프 분위기는 뜨겁다.

코치들도 선수들의 열정을 알기에 1대1 지도에 가까운 정도로 밀착 지도를 하면서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캠프에도 복병은 있다. 부상이 역시 캠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1순위, 어렵게도 캠프 초

반에 이탈자가 나왔다.

외야수 김민수가 어깨가 좋지 않아서 광주로 복귀했고, 7일에도 아찔한 장면이 있었다.

타격 훈련 도중 신인 김도원이 자신의 파울타구에 원발을 맞으면서 예정했던 수비·주루 훈련을 소화하지 못했다.

김도원은 “괜찮다고 했는데 수석코치님께서 쉬라고 하셨다. 수비와 주루 훈련을 많이 기다렸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쉽다”며 아이싱을 한 채 아쉬움을 삼켰다.

/제주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안산 2위·최미선 12위

남녀 8위까지 대표 선발

2022 양궁 국가대표 안산(광주여대)과 최미선(순천시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022 세계여자양궁 왕중왕에 오른 안산은 7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3 양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배점합계 238점을 기록, 강채영(현대모비스·247점)에 이어 2위로 32강에 안착했다.

1차 선발전을 통과한 남녀 각각 64명이 참가해 지난 5일부터 8강 8개조로 나눠 토너먼트(1발 20

초 동시발사)와 기록경기(70m 3발 5세트)를 진행해 32명을 가렸다.

6년 만에 출전한 양궁월드컵 파이널에서 은메달을 따내며 견제를 과시한 2016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미선(순천시청)은 12위(197점)에 자리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거머쥔 이은경(순천시청)은 13위(195점)로 ‘아시안게임 2연패 도전’을 이어간다.

태극마크 탈환에 나선 기보배, 최민선(이상 광주시청)은 22위(161점), 23위(159점)를 차지했고, 안산에 이어 오예진(광주여대·152점)은 29위

로 32강에 합류했다.

남자부에서는 이승윤(남구청·229점)이 4위를 차지했다.

김우진(청주시청·255점)과 김제덕(경북일고·229점)이 각각 1위와 3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우석(코오롱엑스텐보이즈·250점)이 2위를 차지했다.

이날 32강에 합류한 남녀 각각 32명은 8일부터 이틀간 8강 4개조로 나눠 토너먼트와 기록경기를 진행한다. 남녀 각각 20명을 선발하며 상위 8명은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3000m 계주서 금메달

쇼트트랙 한국 여자 대표팀이 6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2022-2023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2차 여자 3000m 계주에서 우승해 금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요양 중 월드컵에서 뛸 것이라 확신”

콘테 토트넘 홋스퍼 감독 영국 언론도 긍정적 전망

출전의 중요성을 잘 안다”면서 “나는 손흥민이 빨리 돌아올 것이며 한국 대표로 월드컵도 뛸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2일 올랭피크 마르세유(프랑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찬셀 옴베바와 충돌해 전반 29분 교체됐다.

이후 왼쪽 눈 주위 근육에 골절된 것으로 드러나 4일 수술대에 올랐다.

현재 손흥민은 영국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손흥민은 오는 21일 개막하는 카타르 월드컵 전까지 토트넘 경기에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손흥민의 부상은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국가대표팀에도 큰 걱정거리다.

다만, 현지 언론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면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 대표팀은 오는 24일 우루과이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첫 경기를 치른다. /연합뉴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홋스퍼 감독은 수술 후 회복 중인 손흥민(30)이 한국 대표로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뛸 수 있을 거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콘테 감독은 7일 (이하 한국시간) 리버풀과 치른 2022-2023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5라운드 홈 경기를 1-2 패배로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먼저 “손흥민이 수술을 받고 나서 어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손흥민은 이상황에 정말 실망스러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나는 손흥민이 잘 회복해서 월드컵에 뛰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콘테 감독은 또 “나도 선수 출신이어서 월드컵

19세 루네, 파리 마스터스 테니스 우승

조코비치 꺾어 ‘파란’

2003년생 신예 홀게르 루네(19위·덴마크)가 노바크 조코비치(7위·세르비아)를 물리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롤렉스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541만5410 유로) 단식에서 우승했다.

루네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조코비치에게 2-1(3-6 6-3 7-5)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루네는 1986년 18세 나이로 이 대회에서 우승한 보리스 베커(독일) 이후 36년 만에 이 대회 최연소 우승자가 됐다.

4대 메이저 대회 바로 아래 등급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루네는 7일 자 세계 랭킹에서 10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US오픈 1회전에서 조코비치에게 1-3(1-6 7-6(7-5) 2-6 1-6)으로 졌던 루네는 1년여 만에 다시 만난 조코비치를 상대로 이번에는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 단식 우승 상금은 83만 6355 유로(11억7000여만원)다.

자신보다 16살이 더 많은 조코비치를 처음으로 꺾은 루네는 “내 생애 가장 기쁜 날”이라며 “작은 꿈을 이뤘고,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루네는 이번 대회 8강에서 2003년생 동갑인 세계 랭킹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물리쳤고, 준결승에서는 최근 16연승을 내달리던 펠릭스 오제알리아심(8위·캐나다)을 제압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마스터스 단식 최다 우승 기록(38회) 보유자인 조코비치는 39번째 우승은 2023시즌을 기약하게 됐다. 이 부문 2위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의 36회와 격차도 벌리지는 못했다.

조코비치는 이 대회에서 2009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9년, 2021년 등 6번이나 우승했으나 올해는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조코비치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최근 젊은 세대들의 약진을 언급하며 “그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언젠가 그들이 나를 꺾겠지만, 내 기량이 유지되는 한 내가 그들을 흔내주겠다”고 농담 섞인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번 대회 8강에서 20세 로렌초 무세티(23위·이탈리아), 4강에서 24세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 등을 물리치며 결승까지 올랐지만 19세 루네에게 결국 혼란 샀다.

/연합뉴스